

가정 예배 모범

- 2021_02_28_장기중앙교회

매일성경 2월호 가정예배_성서유니온 선교회 홈페이지 자료실

▶ 함께 함께 기도 (예배를 시작하며 기도문을 읽습니다)

=> 하나님을 습관처럼 예배해 온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참 감사를 드리며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소서.

▶ 함께 찬양 (가족 모두 잘 아는 다른 찬양을 해도 좋습니다)

=> 감사함으로

▶ 함께 읽기 (주일 본문을 가족들이 돌아가며 읽습니다)

=> 시편 50편 1-23절

▶ 함께 묵상 (질문을 따라 각자 묵상한 내용을 나눕니다)

1)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어떤 모습입니까?(14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감사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감사로 드리는 제사는 공동체로 드리는 감사의 예배를 의미합니다. 예배는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바른 마음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습관적으로, 혹은 억지로 드리거나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아무리 아름답고 완벽한 예배를 드릴 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올바르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여기시는 희생 제사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가정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2)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22절)

하나님께서서는 그분을 잊어버린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은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에서 지워버린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오늘 문맥에 비추어 보면 그들은 습관적이고 무감동하게 예배를 드리면서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명령을 완전히 잊어버린 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을 기억하고 그분을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법도를 지킴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삶으로 하나님을 분노케 하지는 않았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향기를 드리우는 것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 함께 나눔 (한 주간의 일들과 기도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